

본질은 외면하면서
육우송아지값이 오르고 있다면

육우송아지생산안정제,
기립불능우 대책 시급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3월 18일자로 농식품부가 '육우용 젖소 송아지가격 안정제 보여' 제하의 참고자료를 발표한데 대해, 이는 아직까지도 농식품부가 육우송아지생산안정제 도입과 관련한 본질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지난해 말, 폭등하는 사료값과 육우값 폭락으로 육우 송아지값이 단돈 2만원에도 거래가 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되자, 정부가 단기대책으로 오는 3월말까지 수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매기간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송아지값이 2만원에서 11만원으로 상승,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분석은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 쇠고기 산업의 한 축인 육우산업을 안정시켜 달라는 농가 요구에 대해, 송아지가격 하락에 따른 생산비 상승시 원유(原乳)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낙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호도하다니, 참 얼토당토아니다. 참으로 소가 짓겠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고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불과 2, 3년전 40~50만원하던 송아지값이 임시방편인 단기대책으로 이제 겨우 수매가격인 10만원 전후로 형성되었다고 해서 과연 정책의 성과라고 한다면 문제의 답은 없다. 송아지값이 떨어질 때마다 정부수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다 알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당장의 급한 불이 꺼진 게 아니라, 구멍 난 냄비를 임시방편으로 땀질한 것이나 진배없다. 낙농산업의 안정을 위해서는 육우산업 기반안정이 수반되어야 하고, 문제의 본질이자 연결고리인 육우송아지의 생산안정을 위한 여건마련과 송아지생산안정제 도입으로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덧붙여 지난번 정부가 기립불능우 대책방안에 대해 발표에만 급급했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이 또한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 ㊦

2009. 3. 19

한국낙농육우협회